

전주시, 3년 연속 국비 2조원 시대 청신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주시 관련 국비 2조1630억원 규모 반영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주시 관련 국비 2조1630억원 규모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대비 1,262억(6.2%) 늘어난 총 2조1,630억원 규모로 전주시 관련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를 통한 새로운 전주'에 한발 더 나아가갈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정치권과 탄탄한 삼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 단계별 시기적절한 관련 부처 방문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306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국비 예산이 포함됐다.

이들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연차적으로 총 5,544억원 정도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시는 전주 대변혁을 뒷받침할 다양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강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제·산업 분야 예산으로는 △협업지원 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200억원) △AI 신뢰성 검증 허브센터 구축(10억원) △습식파우더 기반 프리프레그 공정기반 구축(28억원) △친환경 재활용 탄소섬유 기반 열가소성 복합재 실증기반 구축(23억원) 사업비 등이 반영됐다.

또한, 시는 △호남권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2억원) 선정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원) 등을 통해 100만 광역·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예산도 쟁겼다.

여기에 정부예산에는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서 가장 한국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주부성 복원 정비(3억원)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2.5억원) △AI 기반 VFX 후반제작시설 구축(10억원) 사업비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스마트시티 조성(70억원)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구축(4억원) 등의 신규사업 예산과 더불어 △전주천 국가하천 정비(20억원) △낙수정·경원왕궁지구 새물마을 조성(13억원)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조성(7억원) 등 다수 사업비를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면서 안전과 돌봄이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132.1억원)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73억원)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90억원)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83억원)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258억원)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털 솔루션 기반구축(21억원) △국립무형유산

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21억원) 등 분야별 주요 계속사업의 국가 예산도 계획대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정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과 예결위 의원들에 지원요청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전북연수 의원실 방문 설명을 진행하는 등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이 추가 반영·증액되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전주시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견인할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예산 추가 확보와 삭감 방지를 위해서 전북자치도·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초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지난 5일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감염병전문가과정 연수생들이 전주시보건소를 방문해 감염병 관리 현장을 견학했다.

전주시보건소 감염병 관리 현장 견학

13개국 33명 이종욱펠로우십 감염병전문가과정 연수생 방문

미래 감염병 전문가를 꿈꾸는 13개 국가의 연수생들이 전주시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노하우를 배웠다. 전주시는 지난 5일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감염병전문가과정 연수생들이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를 방문해 감염병 관리 현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주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을 지낸 고(故)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계승해 2007년 개설된 해외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문은 9주간 진행되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감염병전문가과정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13개국 33명의 보건의료인력 연수생들은

감염병 대응 우수보건소인 전주시보건소를 방문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연수생들은 전주시보건소의 감염병관리과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감염병 대응 경험과 주요 사례 등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는 지난해 2020년 8월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관리유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방문이 각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세계적 감염병 대응 체계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전주시, 1차 지급 신청 12일 마감

전주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마감일이 도래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12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주지역 총 지급대상자 62만 4527명 중 61만 6537명이 신청해 약 98.7%의 신청이 완료한 가운데 총 지급액은 약 1231억 원이다.

이번 1차 신청을 통해 일반시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계층 33만 원, 기초

수급자 43만 원이 각각 지급됐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12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준일(6월 18일) 이후 출생이나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사유로 새롭게 지급 요건에 포함될 경우에는 1차분 지급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오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준일 이후 신규로 취약계층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약계층 자격이 변동한 경우, 수도관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원금액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각 동 전달 공무원이 현장 접수와 카드 발급

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1차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준비 중이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승원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력 수단"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공유재산 실무교육 실시

전주시는 각 부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35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 강사가 법령과 제도, 업무 처리 요령 등을 실무현장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 관련 사례 및 질의응답 등이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교육과 더불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 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특별한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건지산숲속도서관에서 도심 속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3일 '자연의 소리로 자연을 배우다' 프로그램에서는 양경모 예코샵 홀씨 대표가 초청해 숲속에서 들 수 있는 새와 곤충, 바람과 비의 소리를 주제로 △창작을 깨우는 귀 열기(Ear cleaning) 실습 △새·곤충·개구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 탐구 △계절에 따라 변하는 소리풍경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상 속 소음과는 다른 자연의 울림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어 27일 진행되는 '여기는 건지



숲! 프로그램에서는 송원주 놀터 대표와 최경호 숲 해설가가 △싱잉볼 명상 △맨발 걷기 △우드버닝 체험 등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건지산숲속도서관 위치와 운영시간,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도서관 누리집(ub.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병섭)은 청소년의 학업 지속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100명에게 통학비를 지원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저

소득가정 고등학생 중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이며, 등하교를 위해 대중교통 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다. 재단은 앞서 지난 상반기에도 학생 1인당 12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부터는 지난 8월부터 인상된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을 반영해 지원액을 13만 5000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학생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총 25만 5000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저소득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554명의 청소년에게 통학비를 지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